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42호 현대불교

29

2011년 6월 29일(음 5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영원한 근본을 발견해야

생활 속에서의 참선에 대해

문) 스님께서는 생활 참선을 특히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에 다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앉아서 좌선도 해 보고 그러는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참선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물질계의 50%만 가지고는 도저히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계 50%와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인간이 자유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불이다 부처다 이라기 이전에 말합니다. 전자와 전자가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오죠?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이 전자와 전자가 갖다 대는 게 부(父)라면, 불이 들어오는 건 바로 여러분의 불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지금 수십억 개의 그 의식과 모습,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위 공장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공장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직원이라고 해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한마음입니다. 위 공장이니 장 공장이니 소장 공장, 대장 공장, 방광 공장, 이 공장이 하도 많아서 외출 수도 없습니다. 이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을 부리는 나나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사장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결국은 그 나의, 내가 일하는 나 자체의 집일 수도 있고, 절에서는 시자라고 합니다. 나는 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사는 데 관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는 건 봤지만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건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이러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지 몸이 이러라 저래라 합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크나큰 우주를,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그릇 없는 그릇에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담을 수도 있지만, 하나도 몰라서 그대로 내가 걸었지. 내가 하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다가 몸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영원한 근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



그림 · 최주현

업이 바로 이 몸속에 수십억 마리가 있습니다. 의식이 많을수록 대로 여러분은 망상이 나온다. 뭐가 한다 그러죠?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으니 미라는 오지 않았으니 미라는 공했으니 미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나오는 거나 가고 오는 거나, 만남이나 먹는 거나, 고정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발자취 남기지 않았으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발자취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어저께 이력하고 했는데 아, 고놈이 고릴 수 있어?' 하고, 뒷발자취를 그냥 붙들고 늘어집니다. 또 '그것이 어저께 잘랐는데, 그놈의 거.' 하고 '아이구, 그놈의 게 다 없어졌어!' 그러고선 그냥 또 붙들고 늘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해서 이 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버스 안에서 버스가 어딘가로 돌아가고 이 지금 여러분은 버스 안에서 내다보지도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 마리의 의식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숙명통, 그것은 비유하건대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 악업 선업은 내 몸뚱이 속에서 그 의식들에 의해서 그냥 나옵니다. 자기가 나올 때 아주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오듯이, 영화배우들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일러 드리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입력을 되해라 이겁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땅 위에서 가다 옆

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지 판 데 짚고 일어나지 않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건 그 자리에다 맡겨 놔야 앞서 입력된 게 무너지죠. 연방 넣으면 넣는 대로 앞서 넣은 게 무너지고 또 들어가고 하면서 항상 그릇은 비어 있는 거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것이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모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 인과성이 모두, 애고성이나 오간지욕성,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져야 새 맛을 볼 수 있을 텐데 무너지질 않고 그냥 그저 묵은 데서 나오듯 연방 나오니 여러분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의 모든 것을 녹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주인공에다가 놓고 돌아가야 된다. 안되는 것은 '거기서 안되는 것도 나오는 거니까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지. 거기서밖에 할 수 없어!' 하고 놓는 거지 '해 주시오!' 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다 맡겨 놓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즉, 참선입니다. 앉아서 좌선이다 입선이다 또는 와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합해서 생활 자체가 참선입니다. 여러분, 참선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천칠백 공안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세상만사가 다 하나도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마가 발이 많은데 "저거 발이 많아도 하나도 안 걸려?" 하면 그리마가 가다가 우뚝 서고 걸리듯이, 그냥 걸리지 않고 항상 하다가도 그저 누가 말만 하면 걸려요. 이 참선이라는 이 자체가 아주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작년 씨를 울봄에 심었다 말합니다. 심어서 싹이 나서 수박이 열렸어요. 그랬는데 참선인가 뭐 좌선인가 한다고, 또는 화두를 받았다고, 이것은 과거의 내 씨를 찾고 있던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그 씨는 화해서 싹이 돼서 수박이 열려서 수박이 익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수박씨가 있는 줄 모르고 자기 바깥에 자기 나기 이전에 가서 찾으려고 엘 쓴다 이 소립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발달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벗어난대서야 되겠습니까. 이 모두가, 산(生) 사람 개개인 이 다 주어져 있는 그 재료만 가지고 여여하게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인간이란 99%를 바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한 장의 백지장 사이를 몰라서 모두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좌선 해 나가시는 거, 그것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암상해서 앉아서 좌선을 하면 '앉아서 좌선을 내가 해야지.' 하고 합니다. 그건 말 안 해도 뜻으로 벌써 '어휴, 내가 이거 할 시간인데.' 하고 합니다. 다 했으면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아, 일어나서 뭐 해야지.' 하고 인제 합니다. 그러면 좌선할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좌선 안 할 때 안 돌아가나요? 항상 도루묵이 되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도루묵쟁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헌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현대불교 헌불삼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한 철 사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답게 삽시다

29면에서 계속

이. 그러나 앉다는 생각도 선다는 생각도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못하는 거, 하는 거 따로 없다. 행선 해도 행선이요, 좌선 해도 좌선이요, 입선 해도 입선이요, 드러누워서도 와선이요,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살아 보시죠? 그런데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게 전체가 참선 아닌 게 없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 불당에만 가 야만이 또 부처님이 계신 줄 알고, 부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부처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낳아서 학교에 보내듯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그 뜻을 확실히 알고 싶다면 절에 자주 나가서 공부해 보세요.

마음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문) 부처님께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아프지도 않고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아프기도 하고 집안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 것이지요?

답)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나는 주인공을 찾는데도 이렇게 안됩니다.” “주인공을 찾았더니 잘되다가 또 안됩니다.” 이러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 발짝 떼어 놓는 거만 알았지 한 발짝 또 놓고 드는 것을 몰라서 그런 소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짝을 들었으면 한 발짝은 놓고 한 발짝 들었으면 한 발짝 놓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알아야, 드는 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놓는 것도 알아야 들고 놓고 들고 놓는 작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주인공을 찾았으니 어느 만큼은 되더니 안되더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알아야 전진하기만 하면 빠져 죽죠? 때에 따라서 전진하기만 하면 구덩이에 빠질 텐데 그때는 물러서야 빠져 죽지 않죠? 그러니 드는 것도 법, 들지 않는 것도 법. 그래서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한 것입니다. 왜 안되는 것도 법이라 했느냐? 구덩이에 빠지겠으니 빠질 일은 물러서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물러서서 다시 굴러 놓으면 빠지지 않을 테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굴릴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

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몸만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천차만별로 아픔을 가지고 가는데 바로 그 아픔이라는 재료가 지금 거기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공부길에 들어선 걸 뜻합니다. 그냥 맨손으로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들어선 겁니다. 그 재료가 아니면 이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살지.’ 하는 마음이면 이 길을 들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모든 것은 공경했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애걸 하지만 프로펠러 돌아가는데, 그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기에 먼저 앓을 자리가 어딴습니까? 네? 먼저 앓을 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이 낫다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겼다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당했다, 내가 가졌다, 내가 병났다, 모두가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고정됨이 없

이 돌아간다고 했죠. 그걸 집착하시죠? 고정됨이 없이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하고 만나고 먹고 고정됨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 반시도 그냥 고정된 게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고 부서지고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먼저 앓을 자리가 어딴것이나 아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가져오는 그 재료를 보면 모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가 아니라 전체 포함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런 것이 마음에 따라서 부딪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서 나한테 자주 연관이 되는 거니까 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말입니다, 내 몸속에 들어서서 자주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업식이라고 하고 업보라고 하고 유전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다 ‘아픔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긴 거다. 업보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고라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를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게도 준 것이다. 이끌어 주는 재료가 주어 진 거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공한테 맡겨 놓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냥 틀고 앉아서 ‘이게 뭐고?’ 라든가, 의정을 강제로 내 가지고 한다면가 이렇다면 그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일체 만법의 근원이며 그 근본을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그냥 ‘나는 주인공을 찾았는데도 이렇습니다.’ 하지 말고,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없는 것을 찾는 것이라야 이게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즉, 암흑 속에서 밝음이 불끈 솟아서 불이 일어나면 모두가 밝게 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되든 안되든 몰라서지 마시고 진짜로 주인공을 믿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낙태하고 나면 죄의식을 느껴 괴롭습니다
문)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병원 사

때에 따라서, 전진하기만 하면 구덩이에 빠질 텐데 그때는 물러나야 빠져 죽지 않죠? 그러니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 낙태를 안 할 수도 없어서 하기는 하고 있으나 한번 하고 나면 살인을 한 것 같은 죄의식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그게 얼마나 죄가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것도 여러 가지요.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됐기에 낙태를 했느냐에 따라서 더하고 덜하고 죄가 있겠고, 어쩔 수가 없어서, 남편의 배신으로 써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여자기 배신을 하기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돈벌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련할 낱고 살자 해서 낙태하는 수도 있고요. 여자를 많이 낳았지만 남자가 영 생기질 않기 때문에 자주 낙태하는 수가 많고요. 여러 가지가지겠지요.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런데 이 공부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낙태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낙태하는 숫자를 생각해서 그냥 그걸 정성을 들이려고 자주 그래요. 그래서 ‘네 마음에 영을 만 개를 갖다가 넣으면 몇 개가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는 건간이 떨어 가지고는 문도 닫게 되고 뭐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건간이 그랬습니다마는 이 공부를 그네들이 하고부터는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딱 주어져서, 딱 70살이고 80살이고 주어져서 언제 임태가 됩니다. 그러는데 중간에서 그냥 탁 치워버리니까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70살까지 살 나이라면 70살까지 허공에서 돌아야만 됩니다. 기한까지는. 이게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조금도 에누리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얼마나 가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를 배우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바로 그냥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돼 버려도 두드러지지 않죠? 빗물이 바다로 수 방울, 수많은 방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죠? 이 한 그릇의 물을 한 그릇의 물에다가 이렇게 부은들 그냥 한 그릇이죠? 그와 같이 그렇게 해서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또 이 주인공에 의해서 줄을 놔서 내보낸단 말입니다. 좀 더 좋은 데로 그렇게 약스럽게, 그렇게 죽어야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그렇게 죽어지면 안 되리만

큼 됐던 그 가정에 다시금 태어나지 말라.’ 하고 한번 영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들어갈 때는 검열이 심하고 못 들어가죠. 그와 같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일임하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데는 이 블랙홀이라는 이 핵심적인 거기 문을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다는 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할 때는 언감생심 거기를 어떻게 드나들니까? 들어가도 싶어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 직역으로서 뱃지라도 얻어야 거길 드나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생의 조건은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건데, 이견 청와대 아닌 청와대를 말합니다.

그 블랙홀, 핵심적인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차원이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살고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압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한다면 그 죽은 아이도 오히려 천도가 되고, 외려 천도를 시켜 줬으니 고평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더 잘되고, 산부인과 일은 자주 걸리지만 하다가 아주 걸리지도 않고 잘돼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데 문

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데서 문제가 더 크다는 얘 겁니다.

이렇게 상해 얘기해 드리다 보니까 좀 이상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떡하든지 여러분이 편리하고 되는 조건으로 자주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뭐 안 된다, 뭐 죄가 있어서, 너는 무슨 뭐 업이 있어서 못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이 불바퀴에다가 그냥 갖다가 넣으면 타 버리는 거와 같고, 자력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그 뭘니까? 자석이 큰 덩어리가 있는데 쪼꼬만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큰 덩어리 갖다 넣으면 그냥 하하, 하하하. 하나로 돼 버리고 말죠. 그와 같은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그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반면에 생활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생활이 급박해질 수도 있고, 생활이 완화될 수도 있고, 다복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극치적으로 그냥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스럽게 못하는지 나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아요.

참 말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문)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구업을 많이 짓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않은 걸 마치 확실한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것도 아주 쉽게 저지르고 이러쿵저러쿵 참 쓸데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불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참 부끄러워합니다. 한 말씀 따끔하게 알려주세요.

답) 사람이 사는 생각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업보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겁니다. 아, 아. 그냥 추측으로 그냥 막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다면 그건 업보가 큼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하십시오. 남이 “너 이놈, 내 오늘 저녁에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더라도 허허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탓 안 하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주인공, 내가 있으니까 찔러 죽여 온다지, 내가 없다면 찔러 죽일 게 뭐 있어서 오겠나? 하고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같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고 한 철 사는데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사람답게 삽시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부처님 법이고 내가 부처님 법을 행하고 있고, 내 가정이 다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직여서는 게 다 부처님 법이니, ‘이것이 바로 참선이며 나를 발견하는 바로 재료구나. 부딪치는 게 다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렛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 차서 온 *오심, 구역,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벅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제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많은 스님, 불자들이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유통업체 (조흥식품, 오심건강, 오심건강, 오심건강, 오심건강, 오심건강)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뉴롬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롬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롬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 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롬비니는 담배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롬비니에 반응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버린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故승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범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병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석학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규격 8.5x5.2x2.0cm) 가격 34,000원(건설지포함)
 *롬비니에 반응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롬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롬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롬비니, 아답터, 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3-9184)
 입금계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 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